



# “한·뉴 정부간 절편녹용회의 생산자도 참석하자”

- 본회 뉴질랜드양육위원회에 제안, 차기회담부터 4자회담 이뤄질 듯 -

한·뉴 정부간 주도되던 절편녹용 관련 회의에 이해당사자인 생산자들도 참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지난 12월27일 우리정부와 생산자간 간담회에서 본회가 제안한 4자회담에 원칙적 동의 의사를 밝힌 우리정부의 입장에 따라 본회는 뉴질랜드양육위원회(GIB)에 공문을 발송, 양국 정부와 생산

자가 함께하는 4자회담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GIB측도 4자회담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본회에 전달해 왔다. 그러나 1월 21일부터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정부간 실시되는 절편녹용 관련 제3차 실무자 회의에 대해서는 시간이 촉박하고, GIB 회장 및 실무자들이 자리를 비운 관계로 4자회담 성사가 불가하다고 밝히고 차기 회의부터 4자회담을 실시하자고 제안해 왔다.

이에 따라 본회는 제3차 정부간 실무자회의에서는 절편녹용 수입과 관련된 검사관 파견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다음 회의까지 유보해달라는 공문을 우리측 정부에 전달하고 금번 회의시 민간 협의를 통한 원만한 타협 기회부여를 뉴 정부측에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따라서 뉴 정부가 4자회



▲ 사진은 지난해 9월 17일 뉴질랜드 양육위원회 임원과 본회 임원이 양국 생산자 회담직후 촬영한 기념사진



담 불가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올 여름쯤 우리나라에서 예정되어 있는 제4차 실무자회의부터 4자회담이 성사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본회 관계자는 “GIB측도 어느 한쪽의 피해를 담보로한 무조건적인 수입은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양국의 교류협력으로 제 3시장을 개척하자는 의견 절충도 이루어진바 있다. 따라서 GIB측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절편녹용 수입문제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루고 4자회담을 통해 뉴 정부에 양국

생산자 입장을 전달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절편녹용 수입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4자회담 방식은 양국 정부의 공식회의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간담회 형식을 취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본회는 이 4자회담을 통해 뉴정부와 생산자단체에 절편녹용 수입불가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현재 참여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절편녹용 수입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도양록**

## 절편녹용 정부부처 회의를 생산자의견

1월15일 열리는 절편녹용 수입협상 관련 정부부처간 실무회의시 생산자 단체인 본회가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본회 의견을 보내드리오니, 회의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21~25일 열리는 정부간 실무협상에 대한 생산자 의견

- 양국 생산자간 민간협의 진행을 감안, 우리정부안 제시 유보
- 차기 회의 일정 논의시 4자회담 필요성 강조, 회의원칙 결론유도 희망
- 일방적 요구에 의한 개방 결정시 녹용 소비자인 한의사협회, 농민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 대대적인 뉴질랜드산 녹용 불매운동, 뉴질랜드산 제품 불매 및 여행자제 캠페인 추진 예상, 민간협의를 통한 원만한 타협 기회부여를 뉴 정부에 제안해 주실 것.
- 우리정부 검사관 과건 반대. 품질기준 마련 전까지 수입을 전제로한 어떠한 진행도 있어서는 안됨.
- 기타 국내 양록산업 육성을 위한 의견 등은 12월27일 간담회시 제시한 바 있으며 2월 정부부처 및 생산자 2차 간담회를 요망